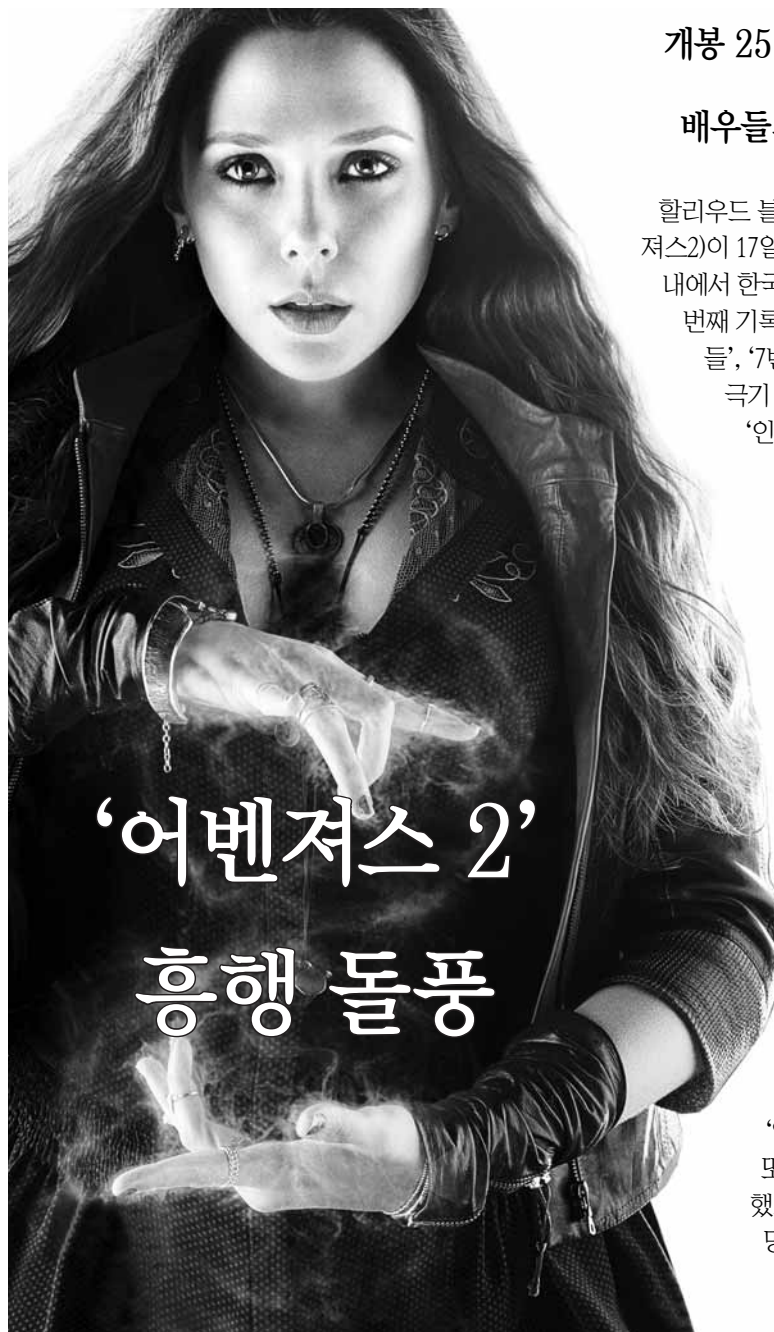


TV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and 1-12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어벤져스 2’ 흥행 돌풍

개봉 25일 만에 1000만...역대외화 최단기간

배우들의 잇단 망언에도 불구하고 인기몰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이 17일 개봉 25일 만에 관객 1000만명 고지를 넘어섰다.

어벤져스2는 올해 개봉작 가운데 처음으로 관객 1000만명을 돌파한 영화다. 역대 외화로는 ‘아바타’, ‘겨울왕국’, ‘인터스텔라’에 이어 네 번째이며, 마블 스튜디오가 제작한 영화로는 처음이다.

어벤져스2는 역대 영화 첫 사전 예매량 100만장 돌파를 시작으로 역대 외화 박스오피스 평일 최고 오프닝 기록(관객 62만명)을 세우는 등 폭발적인 흥행을 예고했다.

이런 분위기는 개봉 2일째 100만명, 3일째 200만명, 4일째 300만명, 7일째 400만명, 9일째 500만명, 10일째 600만명, 11일째 700만명, 13일째 800만명, 17일째 900만명 돌파로 이어지면서 매번 ‘역대 외화 최단기간’이라는 수식어를 놓치지 않았다.

또 역대 근조자의 날 최매 관객수(77만2666명)를 기록했으며, 역대 외화 가운데 최대 주말 관객수(281만8886명) 타이틀도 거머쥐었다.

흥행 수익은 제작비 2억5000만달러(약 2717억원)를 이미 회수하며 세계적으로 10억달러(약 1조860억원)를 넘어섰다.

어벤져스2는 서울에서 여러 액션장면을 촬영했고, 한국 배우 수현을 캐스팅하는 등 ‘작실한 듯’ 한국 시장을 공략한 영화다.

서울이 등장하는 분량이 7분여의 전투 장면을 포함해 20분 안팎에 그쳤다는 점은 논란거리였다. 이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외국 영상물 국내 로케이션’ 사업에 선정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조성된 지원금으로 제작진이 국내에서 쓰는 제작비의 20~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런 영화의 국내 제작비는 100억원 정도로, 약 30억원을 되돌려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벤져스2 제작진의 작년 국내 촬영 때 시민이 겪은 불편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영화는 초반 국내 전체 스크린 약 2300개 가운데 1800개가 넘는 상영관을 장악하며 독과점 논란도 일으켰다. 개봉 4주차까지 1000개 이상의 스크린을 유지하면서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관객의 선택권을 빼앗아갔다는 비판과 불만이 목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왔다.

출연 배우들은 잇단 망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캡틴 아메리카 역의 크리스 에벤스와 호크 아이를 연기한 제레미 레너는 한 TV 인터뷰에서 블랙 위도우를 ‘난잡한 여자(slut)’, ‘매춘부(whore)’라고 지칭해 물의를 빚었다.

“영화란 관객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

배우 황정민 대학생들에게 ‘연기론’ 강연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 국민 배우로 거듭난 배우 황정민이 영화인들을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자신만의 연기 철학을 전했다. 18일 CJ CGV에 따르면 황정민은 지난 15일 CGV 신촌 아트레온에서 ‘황정민의 연기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자리에서 “배우란 관객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민은 “영화란 만드는 사람들과의 맞장구치며 좋다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엔 최종적으로 이를 보는 관객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정민은 “배우로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가 맡은 배역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며 좋은 작품을 위해 스스로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절제함이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연극배우로도 활동한 경험이 있는 그는 일찍부터 예술에 대해 고민을 했다고 한다.

황정민은 배우를 꿈꾸는 이들에게 늦은 나이에 연기를 시작했다면 본인의 실속한 경험담을 들려 주기도 했다.

“언제 시작했는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엔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행복한가의 문제이고, 그렇다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끝)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 국민 배우로 거듭난 배우 황정민이 영화인들을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자신만의 연기 철학을 전했다.

18일 CJ CGV에 따르면 황정민은 지난 15일 CGV 신촌 아트레온에서 ‘황정민의 연기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자리에서 “배우란 관객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BS 1

Table listing EBS 1 programs including 'EBSe 생활영어', '성공 인생후반전', 'EBS 인문학 특강(재)', etc.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including '올림포스 <국어 I-일짜개념>', '고교 Basic Grammar-junior', etc.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including '2015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 강좌', etc.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of daily fortune telling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with dates and horoscope text.

드라마 프로듀사, OST 강자들 라인업

이승철·백지영 등 참여 음원차트 상승세

이승철, 백지영 등 ‘OST 강자’들이 KBS 2TV 드라마 ‘프로듀사’의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 작업에 대거 참여했다.

‘별에서 온 그대’의 박지은 작가를 비롯해 ‘개그콘서트’로 이름을 알린 서수민 KBS CP, ‘풀하우스’, ‘그들이 사는 세상’을 만든 표민수 PD가 공동 연출에 참여해 관심이 한껏 높아졌다.